

# 광주시, 2030년 '자원회수시설' 건립 원점... 쓰레기대란 우려

주민 반발에 부지선정 최종 보류 선정방식 바꾼 후 입지공모 추진  
2030년까지 소각장 가동 못할 시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 100억 넘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쓰레기 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30년 가동 전까지 5년안에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광주는 타지역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지난 11일 부지 선정을 최종 보류했다.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 방식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이곳 노동자들이 설 연휴 당시 배출된 쓰레기 봉투 더미 속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법인 등이 각 자치구에 유치 신청을 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친 뒤 시에 의뢰한다. 광주시는 입지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입지 결정 고시'한 뒤 건립에 나선다.

입지 결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2025년 안에 완료하면 자원회수시설 공사 기간 3년을 고려해 '2029년 완공·시험 가동, 2030년 본 가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됐던 선정절차가 2년여만에 보류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2030년 가동 계획은 차질이 빚어졌다.

당장 5개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추진한 후 후보지를 선정

하고 주민 동의까지 마쳐야 한다. 설득의 과정이 쉽지 않아 후보지 선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광주시의 보류 결정도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고 각 자치구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져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구장들이 반대 목소리 최소화를 위해 소각장 유치에 뒷집을 질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지역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550t 규모이다. 5개 자치구는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수수료 톤

당 1만8640원을 지급하고 매립 하고 있다. 매립장이 있는 남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가산금 10%를 더 지불하고 있다.

하루 쓰레기 처리 예산 1100여만 원, 1년 30억원~40억원여 비용이 발생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량도 늘고 있어 2030년에는 650t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자치구는 인접한 타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야 한다.

현재는 가산금이 10%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1년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3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공사비의 20%인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

####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박차

광주시가 천안 호두과자, 경주 십원빵, 통영 꿀빵처럼 광주하면 떠오르는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 디저트 개발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맛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 음료, 선물용 간식 등 개발을 위한 '광주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사업자'를 오는 8월 2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특히 단순히 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제작부터 포장 패키지,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화순군

#### 24시 어린이집 2곳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곳(화순한양탕스어린이집, 화순힐스테이트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부모의 야간경제 활동, 출장, 병원 진료 등의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이다.

이용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6개월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며, 시간당 보육료는 1000원으로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 신안군

#### 2000년 된 '주목나무' 전시

전남 신안군의 1004섬분재정원이 오는 28일까지 주목나무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최고의 주목분재 작품들과 함께 보호실에서 세심하게 관리된 2000년 주목나무가 전시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주목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특성과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목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고성군

####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 육성과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8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의 이해와 농산물 가공 인허가 절차 및 식품위생법 해설 등 이론과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실습 교육으로 총 7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농산물 가공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성(전남)=이도식 기자

## 포항국제불빛축제, 재미·경제 다 잡았다

불빛드론쇼 등서 높은 만족도 보여  
올해 33만명 인파... 전년비 10% ↑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재미와 경제를 다 잡은 축제로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상길 포항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12일 보고회에서는 포항문화재단, 후원사,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 60여 명이 참석해 축제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평가 용역 및 종합결과 보고,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시는 축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분석뿐만 아니라 주관사인 포항문화재단 및 불꽃연화의 총연출을 담당하는 ㈜한화화합에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

인 철강도시인 포항을 상징하는 '불'과 '빛'을 활용한 메인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한 점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 축제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1000대 불꽃 드론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빛드론쇼'와 국내 유일한 국제불꽃경연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어플을 통해 해외 3개국 중화려한 불꽃 연화가 강점인 중국팀을 우승팀으로 직접 뽑는 등 신선한 축제 경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축제에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3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축제의 인기를 입증하듯 전체 방문객 중 외지인 비율이 49.4%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방문객 중에는 재방문율이 67.3%로 충성도 높은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지난달 17일 경상남도 물가안정대책본부 회의 모습.

## 경남도, 물가상승률 2%대에도 안정화 총력

### 물가안정대책본부 구성·운영

경남도는 최근 3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2%대이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전국 대비 낮지만 물가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에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전격 동결하고, '경상남도 물가안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남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

린 2024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표해 상반기 물가안정화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 특별지시로 지난 6월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생활에 밀접한 품목 64종의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장성군,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 착수

### 필암서원~홍길동 테마파크 연결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필암서원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000여 만 원을 투입해 약 1.9km 규모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황룡면 맥호리 매실마을에서 시작해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까지 이어진다. ▲둘레길 개설 및 정비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며, 오는 10월 경 준공할 계획이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역사 속 실존 인물로 알려진 홍길동이 살았던 아치실 마을에 조성된 관광 명소다. 홍길동 생가와 의적들이 머물던 산채 등이 복원돼 있다.

특히 여름에는 분수를 가동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다. 분수는 주말 및 휴일 10~17시에 운영하며,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평일에도 가동한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 해남군, 12개 읍면서 '농촌 왕진버스' 운영

### 오는 18일 순회 시작

해남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청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해남군에서는 해남읍을 비롯해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마산, 산이, 문내, 화원 총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9개 지역농협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는 18일 문내면에서 순회를 시작한다.

의료 검진은 농촌 주민의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며, 주요 내용은 양·향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돌보기 서비스 등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